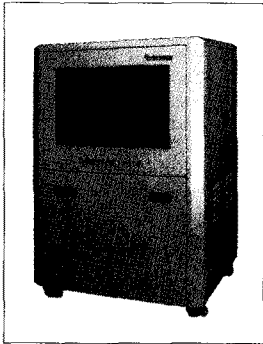


(주)캐리마, 쾌속 조형기 시장에서 '쾌속 질주'

취재 | 박지연 기자



▶ 캐리마의 쾌속 조형기 MASTER

디지털 사진 출력전문 업체로 잘 알려진 (주) 캐리마(대표·이병극, www.carima.co.kr)가 그간의 집약된 광학 기술을 토대로 개발한 조형기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캐리마의 28년간 집약된 기술력이 그대로 녹아있는 쾌속 조형기(Rapid prototyping Machine/모델명: MASTER)는 컴퓨터에 저장된 3차원 형상모델의 기하학적 자료로부터 그 물리적인 모형형상을 신속하게 조형해내는 장비이다.

전 산업에 걸쳐 제조업체들이 제품 생산 전에는 금형 및 설계, 시제품 등을 제작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시간과 비용, 작업의 불편함 등이 수반됐다. 특히 외산제품이 대부분인 관련 시장에서 캐리마의 쾌속 조형기 MASTER를 통하면 빠른 시간 안에 최고의 정밀도를 자랑하는 시제품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품가격 및 유지비용까지 저렴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캐리마의 MASTER는 쾌속 조형기 분야 최초로 지식경제부에서 최고의 기술을 선정하는 NET(New Excellent Technology)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2009년 12월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관련업계 최대 규모 전시회인 'EURO MOLD 2009'에 참가한 캐리마는 Rapid prototyping Machine 시

장 50%를 점유한 거대기업인 Staratasys 사의 제휴제안까지 받는 등 수많은 해외업체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국산제품의 자존심을 높였다. 캐리마의 이병극 대표는 "국내에서는 중소기업 관리공단을 비롯하여 동양공업전문대학 기계과와 직업기술사관학교에 교육용 기계를 납품하는 등 특히 교육분야에서 교육용 기자재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따라서 쾌속 조형기를 디자인 관련 학교를 비롯하여 전자·부품 회사, 의료관련 업체, 병원, 건축회사 등을 우선 대상으로 적극 영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리마는 28년 전통의 광학기기 전문회사로 국내 최초 국산필름사진현상기 개발 후 국내 시장의 80%를 점유하며 시장을 이끌어왔으며, 사진시장의 디지털화에 따른 디지털 컨버터 시스템 개발을 통해 해외 30여 개국에서 호평을 받는 등 사진 광학기기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EURO MOLD 2009'에 참가한 캐리마의 부스에서 이병극 대표가 바이어들과 상담을 벌이고 있다.